

# 보살의 원력으로 중생심·번뇌 끊고 사세요

주제:여래의 사자(使者)를 만나다 2

일시:11월 3일

장소:광주동구KT문화센터

강사:정락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정락 스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동참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광주불자님들을 이렇게 좋은 법석에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주제는 '업력(業力)의 삶과 원력(願力)의 삶'입니다.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이야기 하는데, 어느 학자가 "깨달음신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시는 것이 불교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대목이 중생이 업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보살의 원력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이 불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업력의 삶과 원력의 삶'이란 다시 말해서 '중생의 삶과 보살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에 있어서, 각자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중생의 업력으로 사는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삶과 부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고 설하신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에 앞서, 행복의 조건을 몇 가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능력을 갖추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체력 뿐만 아니라, 재력, 지식 등 모든 능력을 잘 갖추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자유스러움입니다. 어떤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자유스럽게 살면 행복 조건 중 하나를 성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동시에,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가족 및 이웃, 또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깥에서 기쁜 일도 많이 생겨야 되

겠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복력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능력만 가지고 노력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복력이 있어서 그 복의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가 있으면 땅 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뿌리가 있듯, 보이는 능력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복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제가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건강하고, 오래살고, 능력 있고, 자유스럽고, 지혜가 있고,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이 있는 삶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뭘 더 찾는 표정입니다. 일곱 가지가 부족하다는 표정이네요. 아니면 또 만족하다는 표정입니까? 사실 여기서 한두 가지만 다 갖추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닦았을 때 가령 몸이 좀 아플 때에는 재산도 다 필요 없고, 그저 몸 건강 한 것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중 단 하나만을 구할 수도 있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 건강·장수·재능·자유·지혜·사랑·기쁨·복이 행복 조건 업력의 삶 버리고 반야공 목표로 원력의 삶 살아야

서 그 하나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제일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 이렇게 그 일곱 가지를 다 갖추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만 갖추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세간에서, 중생세간에서 욕심을 갖고 업력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놓고 보면 만족하게, 완전하게, 갖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절에 살 때, 96세 된 노스님을 제가 시봉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절에서 스님들이 세 배를 왔어요. 절에 세배를 와서 96세 된 노스님 보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쭙니, 아주 당당하게 "아흔여섯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배 한 스님이 자기 생각에는 턱달한다고, "아이고, 스님 100세까지 사셔야겠네요." 그랬던 말이죠.

그 스님이 간 다음에 노스님께서 "그 중 다시는 못 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앞으로 나 보고 4년만 살다 죽으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96세

된 노스님께서 더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건강, 오래 사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중생 세간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보통 50대, 60대만 되면 늙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놓고 볼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거의 평준화가 된답니다. 누가 이쁘다 그런 소리, 그 때 되면 안 듣는데요. 그냥 누가 돈이 많다, 그런 이야기나 좋아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건강을 이야기 하고, 오래 살기를 이야기 하고,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00년, 만년 지나면 서로 꼴모양도 못 봅시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한 생명을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중생 세간에서 번뇌를 끊고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세워놓고, 그런 원력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능력에는 재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부자 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서로 욕심내고 자기 자신의 욕심 속에서 살다보면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욕심내서 다투다 보면 절대 혼자서 만족하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잘 살아 보려고 해도 만족할만한 완전한 그런 삶이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를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자유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좀 격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그건 자유라 할 수 없어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해탈을 해야 완전히 자유스러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워려고 해도 마음 속 근심 격정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중생의 업보를 지니고, 업력으로 사는 한은 자유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요. 지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중(衆)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불 한다고 그래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살수행을 해서 성불하겠다는 거,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거, 그러면 중생을 자기 같이 사랑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간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으로는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반야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세속, 세간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 딸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완전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생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한에는 그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원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慈)는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고, 일체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 비(悲)무량심(無量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안에 그런 완성된 사랑, 그걸 자비라 그러고, 그걸 보살행이라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생각해봅시다. 사실 나이가 먹어 가면 점점 기쁨도 줄어들어요. 자기관 기쁨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 기뻐하는 꼴도 못 보게 됩니다.

있어요. 부자가 되면 부자 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진답니다. 아는 것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져보면 서로 욕심내고 자기 자신의 욕심 속에서 살다보면 만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서로 욕심내서 다투다 보면 절대 혼자서 만족하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중생의 업력으로 사는 이 삶 속에서는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잘 살아 보려고 해도 만족할만한 완전한 그런 삶이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를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자유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좀 격정이 있거나, 근심이 있으면 그건 자유라 할 수 없어요. 화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도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해탈을 해야 완전히 자유스러운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워려고 해도 마음 속 근심 격정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지만 중생의 업보를 지니고, 업력으로 사는 한은 자유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요. 지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중(衆)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불 한다고 그래서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보살수행을 해서 성불하겠다는 거,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겠다는 거, 그러면 중생을 자기 같이 사랑하고, 중생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간의 어떤 지혜나 이런 것으로는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는 것은 반야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사랑을 생각해봅시다. 세속, 세간에서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가 아들 딸 사랑하는 것을 그래도 가장 완전하다고 하지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생의 조건을 가지고 사는 한에는 그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이는 원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자(慈)는 일체 중생들을 사랑하고, 일체중생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자'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없애주고자 하는 마음이 비(悲)무량심(無量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말안에 그런 완성된 사랑, 그걸 자비라 그러고, 그걸 보살행이라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생각해봅시다. 사실 나이가 먹어 가면 점점 기쁨도 줄어들어요. 자기관 기쁨 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 기뻐하는 꼴도 못 보게 됩니다.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크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한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대-국 6절 (30×31cm) | 소-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